

# '남원의 기억' 수집 시설 세운다

시, 사업비 3억원 확보 지역 이야기 수집·보존하는 '인생기록관' 구축...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

남원시가 남원다움관 콘텐츠 구축을 위해 지원한 2020년 기능성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과제에 최종 선정되어 총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 남원 인생기록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남원다움관 구축은 남원시가 남원의 기억을 기록으로 보존하는 남원다움관에 기록수집 전문시설 '인생기록관'을 구축해 남원의 이야기

를 상시 수집해 남원의 근현대사를 보존하고 시민 및 관광객에게 체험 및 즐길거리를 제공할 필요에서 기획했다. 인생기록관은 남원다움관 소장기록 및 조사 등을 통해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아트 가상공간으로 구현되며, 일방형 전시의 한계를 벗어나 기록을 직접 남기고 아카이빙 과정에 참여

보는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될 예정이다. 남원다움관은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나,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휴관 중으로, 상황 종료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국립무형유산원·만인의총 기념관, 휴관 기간 연장

문화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25일부터 휴관 중인 전북 소재 국립무형유산원과 만인의총 기념관 휴관 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전날까지 휴관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별도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다. 현재 관람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특별 방역을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내 관람기관과 시설의 재개관 시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와 생활방역 전환시점과 기관별 재개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과 각 기관 누리집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정부적인 대응지침 등에 따라 현황에 맞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 휴관 기관 및 시설은 국립고궁박물관(서울), 덕수궁 석조전·증명전(서울), 창경궁 대운실(서울),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여주),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충무공이순신기념관(아산), 칠백의총(금산)·만인의총(남원) 기념관, 해양유물전시관(목포·태안), 국립무형유산원(전주), 조선왕릉 내 역사문화관 등이다. /뉴시스

### 전주대 국어문화원 '우리말 가꿈이' 모집

학생 개인·단체 신청 가능  
접수 기간은 내달 2일까지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은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도청에서 공동주최하고 전주대 국어문화원이 주관하는 우리말 가꿈이 활동은 범국민의 바른 언어 사용과 상호 배려하는 언어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우리말 가꿈이는 5월부터 12월까지 세종나신 날과 한글날을 비롯해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우리말·글 사랑을 전하게 된다. 우리말 가꿈이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물품이 지원되며, 활동 우수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전라북도지사상 등의 포상도 주어진다. 지원 방법은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누리집(<http://korean.jaac.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korean5@daum.net)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학생 개인 및 단체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5월 2일까지다. 자세한 문은 전주대 국어문화원(063-220-3095, 3222)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영상 제공

국립민속국악원, 11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 '담판' 개최  
원기중·왕기석 진행



원기중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4월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담판(이하 담판)을 관객들에게 음원과 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담판은 판소리의 인류무형유산으로 가치를 극대화하고 관객들에게 판소리의 인문학 지식 향상을 꾀하는 해설이 있는 판소리 공연이다. 판소리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아보고 판소리의 정화 울해 담판은 심정가를 주제로 4월부터 11월까지(10월 제외) 매월 넷째주 토요일 3시에 국립민속국악원 예음실에서 개최되며, 풀이꾼 원기중(국문학 박사)과 이야기꾼 왕기석(국립민속국악원 원장)의 진행과 더불어 매달 각 주제에 맞는 명창들의 판소리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3월~4월의 모든 공연을 취소하며, 관객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마련한 담판 콘텐츠는 사전 녹화로 진행되었으며, <국악방송-FM국악당>과 국립민속국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오디오 클럽>에 국립민속국악원 채널을 신설하는 등 다방면으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국립민속국악원(063-620-2328, 담당자 정수임)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문화누리카드, 집에서 발급하세요'

전북문화관광재단, 온라인 가맹점 확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방문 구매가 어려운 카드 소지자를 위해 온라인 발급 및 가맹점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발급은 누리집(www.mnuri.kr)에서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재충전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전화(ARS)로 가능하고, 고객지원센터(1544-3412)를 통해 카드번호와 개인정보 입력에 의한 본인인증을 마치면 지원금이 충전된다. 단, 카드 유효기간이 2020년까지인 경우에는 우선 충전이 불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가맹점은 넷플릭스, 유튜브, 카카오페이, 멜론 등 온라인 스트리밍 및 웹툰 서비스와 같이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분야의 가맹점이 확대돼, 집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6세(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9만 원을 지원하는 카드

로 발급 및 이용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은 누리집과 고객센터를 이용하고, 가맹점 이용·등록은 전북문화누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및 재단 담당자(230-7461, 7464)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일제강점기 중앙기관의 향교관계 문서' 출간

전주대 HK+연구단, 을사조약 체결 직후부터 광복까지 문서 목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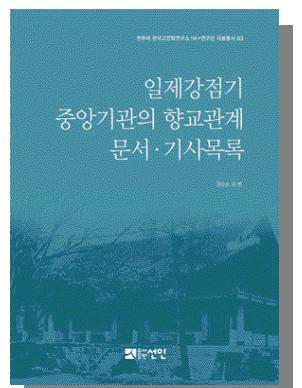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최근 자료총서 3권 '일제강점기 중앙기관의 향교관계 문서·기사목록'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총서는 근대 향교자료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향교관계 문서와 기사의 목록들을 수집한 목록집으로 1910년 을사조약 체결 직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조선총독부 등 중앙기관에서 생산한 자료 가운데 향교 관계 문서를 목록화했다.

공문서로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공문서철, 일본 외무성, 주한일본공공사관 기록, 통감부 문서, 경성지방법원 문서, 육군성, 외무성 문서 등이 수록됐다. 언론 매체로는 조선총독부의 대표적인 기관지인 '매일신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직속 기관지였던 경학원의 기관지인 '경학원잡지', 기타 조선총독부와 그 직속의 기관, 각 도에서 출간한 잡지 및 저서에 수록된 향교 관련 문서와 기록을 한 데 모았다.

각 목록은 원문과 한글로 번역한 문서명/기사명과 발행인, 발신과 수신, 문서철, 면수, 생산년도, 생산처의 순서로 정리했고,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문서는 세부 문서 외에 첨부자료 란을 별도로 뒤 목록만으로도 문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정리했다.

한편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권력에 의해 유려한 지방 세



'일제강점기 중앙기관의 향교관계 문서·기사목록' 책 표지

력으로 평가받았던 향교 유림과 그들의 활동 근거지였던 향교의 실상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